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산 지역 근대 학교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지 연

김지연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주 심 문학박사 이 근 우



위 원 문학박사 신 명 호



위 원 문학박사 박 화 진



목 차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범위(한계)	5
II. 부산 지역 근대 학교 성립	7
1. 근대 학교 성립과 교육 이념	7
2. 부산 근대 학교 성립	10
가. 일본인학교	11
나. 한국인학교	12
III. 부산 지역 근대 학교 변화	16
1. 부산 근대 학교 변화	16

가. 개성학교	16
나. 일신여학교	26
다. 동명학교	33
2. 교과 과정의 특징	40
가. 개성학교	40
나. 일신여학교	41
다. 동명학교	42
3. 근대학교의 교육적 의의	44
IV. 부산 지역 학생 항일 운동	47
1. 학생 항일 운동	47
2.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	59
V. 결론	61
참고문헌	63

표 목차

<표 1> 중등학교 일람(갑·을종)	14
<표 2> 개성학교 연혁 개요	16
<표 3> 개성학교 지교 및 보조교 현황	20
<표 4> 개성학교 초창기의 학생 상황	22
<표 5> 개성학교 졸업생 현황	23
<표 6> 일신여학교 연혁	26
<표 7> 동명학교 연혁	33
<표 8> 공립부산 상업학교 교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	40
<표 9> 일신여학교 편제 및 교과 교수 시수표	41
<표 10> 동명학교 교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	42

A Study on the Modern Schools of Pusan Region

Kim, Ji-Ye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early modern era and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re considered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educa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This is because it was a transition stage which carried out a change from a feudal education organization to a modernist one, while the emphasizing the fundamental policy of self-strength and escaping from outside rule.

The Wagan that had existed before modernization and Pusan which had opened to foreign trade was geologically located to feature local characteristics of its own in terms of education.

In accordance to this trait, this study has surveyed a few of the first modern schools in Pusan. Focusing on Gae Sung School, Il Sin Girl's School, Dong Myoung School we have examined the schools' foundation, change and educational process in order to deduce how

the schools indoctrinated and raised the no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Japanese occupation.

By obtaining this information and infer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we were able to figure out the modern appearance of the local education. These schools on the basis of modernization and christianity taught mechanics and women respectively. They also manage the school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ism.

The foundation of modern schools in Pusan began with the awareness of modernization but was distorted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problem may be resolved in the future by better originization of substantial data evidence.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개화기¹⁾ 및 일제 식민지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종래의 향교, 서당 등 전 근대적 봉건 교육 체제로부터 근대적 교육 체제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를 비롯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강의 근본 방책으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은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은 이민족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교육 정책에 따른 한국 민족의 교육적 저항이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도 매우 다양한 방법론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육사 분야에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을 위주로 한 연구²⁾, 둘째

1) 개화기란 우리 역사상 격동기였던 1876년 개항으로부터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1910년까지의 35년간을 규정하기로 한다.

2) 오경식, 《한국 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 이시용,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관한 고찰〉, 《인천 교육 대학교 초등 교육 연구소 교육논총》, 2000 ; 이원호, 〈개화기 교육 정책의 사적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 《개화기 교육정책사》, 문음사, 1983 ; 정재철, 〈한국에서의 일본 식민지 교육 정책〉, 《새교육》 116호, 1968, 8 ; ----- 〈교육 과정에 나타난 일본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것을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개한 교육을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³⁾, 셋째로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민족의 저항에 관한 연구⁴⁾, 넷째로 기독교 학교의 교육, 또는 그것의 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⁵⁾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해도 이것은 대체로 중앙 정부 중심의 연구에 불과할 뿐 향토사적인 지방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⁶⁾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일제와 거리상으로는 역사적인 상황상으로

식민지 교육 정책》, 《廣場》 36호,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76. 6 ; ----- 〈일본 식민지주의 교육에 관한 사회 사상사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 〈일제 식민지주의 교육의 양상〉, 《교육과 사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민중사, 1983 ; ----- 〈일제의 대한국 식민지 교육 정책사〉, 일지사, 1984.

- 3) 김상기, 〈한말 신교육 구국 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서용원, 〈구한말 사학의 발달과 교육 구국 운동〉, 《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1979 ; 손인수, 〈한국 근대 학교의 간학 정신과 교육 구국 운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자석기,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연구〉, 진명문화사, 1976 ; ----- 〈일제하 민족 교육과 식민 교육의 갈등〉, 《근대 민족 교육의 전개와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한각주, 〈개화기 한국 민족주의 교육 이념 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한미라, 〈구한말 교육 구국 운동 연구 - 1904년 이후 1910년까지 민족언론지를 중심으로 -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4) 정요섭, 〈일제치하에 있어서 한국 여성에 대한 교육 정책과 그 저항 운동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9집, 숙명여자대학교, 1970 ; 정재철, 〈한국에서의 일본 식민지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민족의 교육적 저항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6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75.
- 5) 김양선, 〈한국 현대 교육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의 위치와 그 공헌〉, 《숭실대학교 논문집》 2집, 1970 ; 박노일, 〈기독교계 학교 교육이 한국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치성, 〈한국 민족 운동에 나타난 기독교 학교의 역할〉, 《단국대학교 논문집》 14집, 1980 ; 이승익, 〈기독교 학교 교육이 한국 근대 문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수용에서 한일합방까지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정재철, 〈한일합방 초기의 기독교주의 학교〉, 《중앙대학교 논문집》 9집, 1964.
- 6) 이 부분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혁곤, 〈일제 시대 순천 지방의 교육사 연구〉, 《순천대학교 남도 문화 연구소》, 1997 ;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 지방의 민족 교육 운동 - 정남 학교를 중심으로 - 〉, 《충북대학교 중원 문화 연구소》, 1999 ; 정형진,

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근대 학교를 중심으로 그 성립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 이념 등의 실상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지역사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통하여 한국 근대 학교의 제반 양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사 연구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교육 방침이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전개·확대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근대화의 저변 확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과 별도로 부산·경남의 근대 교육에 있어서의 특수성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부산 지역에는 개화기 이후 경제력을 가진 선각자 및 종교계에 의하여, 여러 사립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신 학문을 지향하는 개화 사상과 교육 구국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립 학교는 애국 계몽의 일환으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재정도 빈약하였으며, 더욱이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통제로 말미암아, 사립 학교가 공립 학교에 흡수되거나 또는 자진 폐교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사립 학교들은 공립 학교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민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족 의식과 반일 감정을 고양시켜 나갔던 것이다.

물론 타 지역에서의 민족 교육이 부진했다고 할 수 없지만, 개화기 이전 부산에 존재했던 왜관이나 개항 이후 개항장이 된 부산의 입지는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특색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화기 이후에서 해방 직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부산 지역의 근대 학교를 중심으로 전반적 교육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지역 최초

〈한말 일제기의 광주·전남지역 근대 학교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시용, 〈개화기의 경거 교육에 관한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2. 등이다.

의 근대 학교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개성학교, 일신여학교, 동명학교를 중심으로, 근대 학교의 성립 및 변화, 교육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일제의 민족 수난기에 어떻게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배양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로써 부산 지역 근대 교육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앞서 말했듯이 개화기 이후부터 일제 식민 기간 동안 성립·변화되어 온 부산 지역의 근대 학교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근대 학교의 성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① 부산 지역 근대 학교의 성립 과정과 변화 모습은 어떠했는가?
- ② 부산 지역 근대 학교의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부산 지역 근대 학교의 전체적인 양상은, 부산시사나 한국교육사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부산 지역 근대 학교의 변화 양상을 짚어보거나 중앙에서 행해졌던 교육이 지방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연구 대상으로 삼는 세 학교는 학교별로 편찬한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개성학교는 《부산상업고등학교 100년사》, 일신여학교는 《동래학원 100년사》, 동명학교는 《동래고등학교 80년사》, 《기영회 140년사》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교육방침, 행정, 목적 등을 살펴볼 것이다.

4. 연구 범위(한계)

시기적으로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 까지의 시기로 제한한다.

지역적으로는 부산 지역에 존재했던 근대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1876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부산 지역내 근대 학교의 성립·변화, 교육 이념, 근대 학교의 교육적 의의 등에 대해 분석 고찰한다.

부산 지역은 개항 이후 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본인이 많이 거주한 곳이다. 부산에 있던 초량 왜관을 접수한 일본 명치 정부의 외교 방침에 따라 그 지역을 일본인 거주지화 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왔다. 또한 부산은 외국 문화 유입의 최초 항구가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는

대륙 문물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전개되었으나 개항 이후부터는 서양을 비롯한 외국 문물·문화가 일본에서부터 부산으로 흘러 들어와 한반도 전역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그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나아가 1905년 전후의 경부선 개통과 관부 연락선(부산-시모노세기)의 취항은 한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날로 늘어만 가는 일본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잇달아 설립되고 이에 자극을 받아 근대 학교들도 다수 설립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부산 지역에 있어서 민족 학교 및 일본인 학교의 교육 실태에 대한 규명은 개항 이후 근대 도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부산 지역 근대 학교에 대하여 특히 민족 학교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당시의 일본인 학교 교육 자료가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인 학교였던 교육 기관의 경우 대부분 해방 이후부터를 그들의 역사로 파악하여 현재 학교 연혁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들의 교육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실상에 대한 해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 학교인 개성학교와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일신여학교, 그리고 기영회에서 설립한 동명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부산 지역 근대 학교 성립

1. 근대 학교 성립과 교육 이념

조선 사회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문호가 개방되면서 몰고 온 개화 물결로 교육에 있어서도 성리학적인 예교주의에 젖었던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노력은 근대 학교의 설립으로 나타난다. 개항 이후 근대 학교의 설립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중앙 정부와 민족 선각자 및 기독교 선교사 등으로 드러난다.

근대 학교 설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과의 통상이 시작되자 통상아문의 부속 기관으로 동문학(일명 통변학교, 1883)과 육영공원(1886)을 설립,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데서 비롯된다. 그 후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제도상의 정비를 단행했고, 1895년에는 고종 황제의 ‘교육입국조서’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근대 학교 설립을 위한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경향 각지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신교육에 상대되는 구교육은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말하고, 신교육은 개항 후에 들어온 새로운 서구식 교육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신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 새로운 지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대 학교였다. 이 근대 학교는 나라의 독립과 발전, 민족 자존 의식 고양,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지향하는 인재양성이었다.

개화기 근대 교육은 사회적인 요청인 근대화에 대한 열망, 이를테면 당

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개화 운동과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자강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정부의 노력과 민족 선각자에 의해 이 땅에 수용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서구의 근대 교육을 직접 수용하게 된 것은 1884년 내한 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서구식 근대 학교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개화기 근대 학교의 성립을 가져오게 하는 주체는 국가의 근대화를 획책하였던 정부와 민족 선각자에 더하여 문호 개방 이후 들어온 선교사 등으로 늘어난다. 정부에 의해서는 관학으로, 선각자에 의해서는 민족 사학으로, 그리고 선교사에 의해서는 기독교계 사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개화기에 수용되는 근대 교육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에서 정부, 민족 선각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근대 학교가 각기 다른 유형의 설립을 보였으며 건학 정신을 달리 나타내고 있다.

관학의 건학 정신은 근대 문화의 수용과 구 교육 제도의 근대화, 개화 의지의 국가적 표현으로 설립됨에 따라 개화 의지를 바탕으로 인계 양성 즉, 관리 양성이라는 임기응변적인 방편에 치우쳤다. 민족 선각자에 의해 설립된 사학은 개화결과 기독교계 학교의 설립에 영향을 받아 개화 사상의 수용과 민족 개조를 위한 교육에 목표를 두었다. 한 마디로 민족적 동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근대 문화 수용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 포교의 한 방편으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으므로 신문화 수용과 교역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즉, 전근대적인 봉건성과 유교적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던 우리 사회에 기독교 정신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이 개화기에 설립되는 근대 학교는 각각 그 설립 유형에 따라 건학 정신 및 교육 이념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화기 근대 학교의 건학 정신은 설립 주체에 따라 달라서 정부에 의한 관학은 일본 관료 정신을 모

방하였고, 민족 선각자에 의한 사학은 민족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었으며, 기독교계 사학은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

한편, 개항 이후 부산 지역에 설립된 근대 학교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민족 선각자·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상이었다. 건학 정신 및 교육 이념도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7) 이시용, 〈개화기의 경기 교육에 관한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pp. 201~202, 2002.

2. 부산 근대 학교 성립

부산 지역 근대 학교들의 경우, 그 성립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을 통한 실업 및 일본어 교육을 통한 근대화, 다른 하나는 서양 선교사에 의한 종교 교육 및 여성 신교육을 통한 근대화,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부터 부산 지역의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동래 지역 유지들에 의한 민족 교육의 온건적 근대화이다.

이들 세 가지 교육 형태는 전자의 두 교육 형태가 서구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구 동래 양반 세력들을 기반으로 한 민족 자존 의식 고취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76년 개항한 이후 일제 세력은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그들의 세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전개시켜 갔다. 그리하여 이후 부산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사회·경제적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들은 부산의 요지인 구 초량 왜관, 광복동, 중앙동, 보수동, 대청동, 대신동 등 지역에 걸쳐 주로 거주하게 되었고, 이 곳에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민족 선각자들은 이에 대항하여 자주·자강의 정신이 팽배하게 일어나 신교육을 통한 민족 교육을 희구하는 기운으로 응집되어 여러 곳에 근대적인 민족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개항 이후 해방에 이르는 시기까지 부산 지역에 존재한 근대 학교 즉, 지역 선각자에 의해 설립된 민족 학교 및 일본에 의한 일본인 학교의 개괄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일본인학교

개항 이후 부산 지역에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을 따로 만들어 두고 있었다. 이 시기의 일본인 학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1867년 수제학교(修齊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뒤에 부산공립소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부산공립심상소학교,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로 재차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의 광일초등학교이다.⁸⁾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자 철도 회사 사원 증가에 따라 초량에 초량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현재 중앙초등학교 자리이다. 나중에 부산제3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하여 운영되었다.

한편, 1906년 부산고등소학교가 대청동에 설립되고 1908년 심상과를 병치하였다가 1910년 심상과는 제2소학교로 분리되어 나가고 고등과는 뒤에 제5소학교로 바뀌어 현재는 각각 화랑초등학교와 토성초등학교이다.

영도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1908년 부산심상소학교 분교를 두었다가 이를 1910년 목도심상소학교로 승격하였는데 현 영선초등학교 자리이다. 뒷날의 부산제4소학교를 말한다.

한편, 1906년 일본인 거류민회가 부산 주재 일본 영사의 인가를 얻어, 그들의 소학교 안에 고등여학교와 상업학교를 설치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일본인 중등 교육기관이다. 당시 일본인 중등학교를 살펴보면, 부산상업학교⁹⁾, 부산고등여학교¹⁰⁾, 부산중학교¹¹⁾,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

8) 이 곳은 조선 시대 연향대청이 있던 곳으로 동래 부사가 초량 왜관을 통해 사신을 영접 하던 곳으로 오늘날 대청동이라는 지명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다.

9) 부산상업학교는 1906년 상업학교로 설립되었다. 1908년에 고등소학교 2년 수료자를 입학시켜 수업 연한 3년의 상업학교로 개편하였다. 1911년에는 수업 연한 1년의 예과와 4년제의 본과로 개편하였으며, 1912년 4월 상업전수학교 규칙에 따라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12년 서구 서대신동 현 경남상업고등학교로 신축 이

미시마실수고등여학교¹²⁾, 立正상업실수학교¹³⁾가 있었다.

나. 한국인학교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된 뒤, 전국의 주교 도시에는 관립이나 공립 학교가 설립되어 1906년 관립 9개, 공립 13개의 22개교에 1,924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부산·동래 지방에는 관·공립 학교가 없었다.¹⁴⁾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민족 선각자에 의한 사학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시기의 교육 기관은 모두 13개로 추정되고 있다.¹⁵⁾ 교육 기관 전반에 대해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하였다. 1914년 거류민회가 폐지되어 부산학교조합으로 이관되었다가 1922년 다시 경상남도로 이관되고 교명을 부산제1공립상업학교로 변경하였다.

- 10) 부산고등여학교는 1906년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회에서 수업 연한 3년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처음은 부산제1심상소학교에서 개교하여 1907년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1910년 서구 토성동 현 토성중학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12년 신학제에 의하여 부산공립고등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현재의 부산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다.
- 11) 부산중학교는 1913년 경성중학교에 이어 두 번째의 관립 일본인 중학교로 동구 초량동에 설립되었다. 1925년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부산공립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부산고등학교의 전신이다.
- 12) 미시마실수고등여학교는 1913년 중구 대청동 현 남성여자고등학교에 4년제로 110명을 입학시켜 개교하였는데, 1927년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 13) 立正상업실수학교는 1937년 일본인 유지들이 3년제의 주·야간 각 학년 1학급편제로 설립하여 대신동 교사에서 개교하였다가 뒤에 영도구 영선동(전 해동고등학교 자리)으로 이전하였다.
- 14) 1907년에 비로소 동래에 최덕, 전승진, 신광욱 등이 발기인이 되어 동래부의 객사에 동래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가 부산, 동래 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보통학교로, 오늘의 내성초등학교 전신이다.
- 15) 개성학교, 일신여학교, 동명학교, 다대포사립실용학교, 사립부산진보통학교, 사립구명학교, 사립옥성학교, 사립명정학교, 사립양정학교, 사립명지동명학교, 사립좌천학교, 사립초량학교, 사립명진학교 등이다.

개성학교¹⁶⁾, 일신여학교¹⁷⁾, 동명학교¹⁸⁾, 다대포사립실용학교¹⁹⁾, 사립부산진보통학교²⁰⁾, 사립구명학교²¹⁾, 사립옥성학교²²⁾, 사립명정학교²³⁾, 사립양정학교²⁴⁾, 사립동명학교²⁵⁾, 사립좌천학교²⁶⁾, 사립조량학교²⁷⁾, 사립명진

16) 1895년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 학교인 개성학교가 지금의 영주동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부산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7) 1895년 좌천동의 한 초가에서 주간 학교를 차리고 일신학교라 하였는데 지금의 동래여중·여고의 전신이다.

18) 1898년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기영회가 동래부학교를 세웠는데 개양학교, 삼락학교, 1907년 동명학교로 개편되었다. 현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 1902년 다대포에서 설립된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1904년 개교되고, 1909년 사립학교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오다가 1943년 다대포공립국민학교 개교와 더불어 1945년에 폐교되었다. 학감은 박인식(朴寅寔)이었으며 체조 교사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한말에 설립되어 1945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20) 부산진에서는 유지들이 오래 전부터 옥영재(育英齋)라는 한문숙을 운영하여 왔는데, 1899년에 개성학교의 부산진지교로 되었고, 1909년 4월에 사립부산진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이어 6월에는 보조지정보통학교로 지정을 받았다. 한편, 부산진부인회의 후원으로 여자 교육기관인 양정숙(養貞塾)이 1908년 5월에 개설되었는데, 이 양정숙은 부인회의 기부금으로 교실을 신축하여 부산진보통학교의 분교장으로 되었다. 이 사립부산진보통학교는 나중에 좌천동에 있는 사립좌천학교를 병합하고, 이어 공립학교로 이관되어 오늘날의 부산진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21) 1907년 구포에서는 1년제의 사립 구명학교(龜鳴學校)가 안희제, 윤상은 등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장우석이 교장으로 있었다. 이 구명학교는 현재의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이다. 동래부참서관 최덕(崔應)이 학교의 경비를 많이 보조하였으며, 1910년 봄에는 휘문의숙 졸업생인 김사용, 일본중학교 졸업생 정운기가 교사가 되었다.

22) 1908년 영도에서는 820평 부지와 35평의 교실을 마련하여 사립 옥성학교(玉成學校)를 설립하고 영도와 남포동을 잇는 도선 5척을 건조 운영하여 그 도선료로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박치호가 교장으로 있었다. 이 학교가 오늘날의 영도초등학교의 전신이다.

23) 1908년 사립 명정학교(明正學校)가 범어사 금어암(金魚庵)에서 개교하였는데, 1923년 현 청룡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4) 1908년에 하단에서는 사립 양정학교(養正學校)가 개교되어, 이유진이 교장으로 있었는데, 공립으로의 이관으로 하단공립보통학교로 되었다가 현 사하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여 사하공립보통학교로 개명, 오늘의 사하초등학교가 되었다.

25) 1908년 명지에서 설립되었다.

26) 좌천동에서 서석주등의 유지들에 의하여 사립좌천학교가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부산진공립보통학교에 병합되었다.

학교²³⁾의 13개이다.

이렇듯 부산 지방의 곳곳에 많은 사립 학교가 설립된 것은 부산 사람들의 신문화에 대한 열의와 자주 자강의 민족 정신의 발로였으며, 이는 부산 사람들의 애국 정신과 교육에의 열정이 어떠한가를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합방 이후 해방 시기까지 부산 소재의 중등학교의 일람표는 아래와 같다.

〈표- 1〉 중등학교일람(갑·을종)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학 생			설립연월
			한국인	일본인	계	
동래공립중학교	5	10	528	4	532	1922년 3월
부산공립중학교	5	15	20	746	766	1913년 3월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4	8	426		426	1927년 3월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5	10	528		582	1909년 4월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5	10	6	536	542	1906년 4월
부산공립직업학교						1933년 6월
부산공립공업학교						1940년 4월
부산공립고등여학교	4	20	11	1,223	1,234	1906년 4월
동래공립농업전수학교	1	1	35		35	1938년 3월
三島고등실업학교			58	533	591	
동래고등여학교	4	4	206		206	1940년 4월
부산상업실천학교			142	56	198	
부산입정상업실수학교	3	5	288	11	299	1937년 1월
경남이발학교	2	2	15	1	16	1928년 2월
대곡가정전수학교	2	2	56		56	1935년 3월
부산조량사업실수학교	3	8	156		156	1939년 3월

27) 초량에서는 유지들이 사립초량학교를 설립하고 박영길이 교장으로 있었다. 이 학교는 재정난으로 얼마 뒤 폐교하고 말았다.

28) 1909년 사상면에서는 명진학교(明進學校)가 설립되었는데, 교장은 지양식(池楊植)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민족 학교 중 부산 지역의 대표적 교육 기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개성학교, 일신여학교, 동명학교 이들 세 학교에 대해 그 성립 과정 및 변화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Ⅲ. 부산 지역 근대 학교 변화

1. 부산 근대 학교 변화

가. 개성학교

〈표- 2〉 개성학교 연혁 개요

1895. 05. 22.	부산개성학교 창립(박기종 외 4명)
1896. 03. 01.	개성학교로 개교
1898. 02. 20.	제1회 졸업(졸업생 7명)
1909. 04. 09.	공립부산실업학교로 개칭(공립학교 표시)
1909. 06. 04.	공립학교로 정식 개교(개교기념일)
1911. 11. 01.	부산공립상업학교로 개칭
1922. 04. 01.	부산진상업학교로 개칭
1923. 04. 01.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로 개칭
1946. 09. 01.	부산공립상업중학교로 개칭
1950. 05. 17.	부산상업고등학교로 개칭
1951. 09. 01.	개성중학교와 부산상업고등학교로 분리

개성학교는 1895년 5월 박기종에 의해 설립된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다. 이 학교 설립에 주동이 된 박기종²⁹⁾은 부산항 경무관을 거쳐 외부 참사관과 무임소 변리공사를 역임한 선각자였다. 학교 명칭을 개성학교로 한 것은 1차 수신사 수행시 김기수를 수행하여 동경에 체류할 때 일본 근대 교육 기관인 개성학교(동경대학의 전신)를 참관한 경험을 살려, 이 명칭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한다.³⁰⁾

박기종은 부산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일본을 통하여 들어오는 서구 문명에 대해서도 선각자로서의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미 부산 개항 이전부터 통상들과의 교유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일본 상인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 개화 선각자로서의 신념을 굳혀 갔고 1876년부터는 관직으로 나아가 외부 참사관으로 조선 주재 일본인들과 교류가 잦았으며 무임소 변리공사도 지냈다. 후일 산업 진흥과 자원 개발에 뜻을 두고 장남은 일본의 광산 학교에, 차남과 친족 자제들은 절도 학교에 유학시킨 것으로 미루어 실용주의적 개화관의 소지자이며 실천자였음을 알 수 있다.³¹⁾

29) 그는 1839년 11월 27일 부산진 좌천동에서 태어나 1907년 8월 1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충기를 보였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초량 왜관에 드나들면서 倭商과 접촉, 일본말과 상술을 배웠다. 이 때 양국 상인들 중간에서 居間일을 맡아본 것 같다고 한다. 여기에서 모은 재산을 발판으로 이장을 장만하여 매년 거액의 수익에서 얻는 자금으로 김해 대저에 토지 수천 두락을 사들여 30대에 벌써 상당한 축재를 하였다. 그는 왜관에 드나들면서 배운 일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서민 출신인데도 관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어 구한말에는 통역관으로 출세하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1876년 5월 제1차로 파견한 대일 수신사 김기수 일행에 박기종은 4명의 通事중 한 사람으로 수행하여 일본의 세 문물을 시찰하고, 그 후 두 차례의 일본 방문에서 얻은 개화 문명에 대한 집념은 후일 그로 하여금 절도 부설에 힘을 쏟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부산 지역 경제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30) 그가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를 '개성학교'라는 이름한 것은 일본 동경대학의 옛 이름이 개성학교였는데, 그 개성학교에서 일본의 근대 교육이 비롯된 것처럼 한국을 개화케 할 근대 교육을 이곳 개성학교에서 이루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31)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권, 1990, p. 24.

1895년 경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기종은, 부산 지역에 근대식 학교 설립을 결심하고, 이내옥·배문화·변한경·이명서 등 5명과 협의하여 개성학교 설립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300원씩 출자한 자금 1,500원으로 영주동의 현 봉래초등학교 남쪽 언덕 위에 1,0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건물 6동을 건축하고 1896년 2월 14일에 학부의 내락을 얻어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겸한 학교로, 개교 당시 100여 명이 입학하였으며, 당시 부산에 체재 중이던 전 일본 육군 예비 상무 학교 교사인 아라나미헤이치로(荒浪平治郎)가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아라나미 교장은 박기종과 협의하여 다방면에서 학교 설립에 조력하였다.³²⁾ 교직원은 교장 외에 이승규가 한문 및 한국어를 담당하였고 일본인 1명이 일본어를 담당하였으며, 얼마 뒤에 일본인 체육 담당 교사가 축탁 교사로 추가되었다. 한편, 창립 당시 마련한 1,500원으로는 학교 운영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창립자 5명이 다시 300원씩 1,500원을 더 내어 학교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학교 운영 경비는 여전히 부족하여 한국인 교사와 일인 교사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희생적으로 근무하여 1년간 겨우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학교 당국이 여러 차례 학부에 청원하여 타개책을 호소한 결과, 1897년 1월 정부로부터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아 한국공립부산개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매년 정부에서 1,200원을, 일본 외무성에서 1,800원의 보조를 받게 되어 학교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다.³³⁾ 당시 약체 정부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과감한 교육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을 것이고 일부 자산가도 끝없는 자금

32) 개성학교 창립 당시 설립자들은 신교육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 신교육을 서구 문명에 한 걸음이라도 앞선 일본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 같다.

33) 이 후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은 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 중 1,000원은 마산·동래·밀양·대구·경주의 각 학교의 보조금으로 분배되었다. 학부와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은 개성학교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었다.

출자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민중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높은 학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교에 자제를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국의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인재난과 자금난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던 시기이다.

부산 지역 일대의 일어 학습열의 고조에 따라 개성학교는 1899년 3월 원구관서방(元舊館書房)과 원부산서방을 지교로 하여 각각 구관지교, 부산진지교라 칭하였다. 경비를 보조하고 교원을 파견하여 일본어 및 그 밖의 수업을 행하는 지교가 설립되어 종래의 서당식 교육을 탈피하였고, 그 후에는 매월 개성학교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학교가 생겨났다.

1900년에는 밀양의 손정현이 설립한 사설 학교를 보조교로 하여 밀양개창학교라고 하였으며, 교사 1명을 출장 근무시키고 760원을 보조해 주었다. 이 보조교는 초등과에 간이 중등과를 한 때 설치한 일이 있으며, 학생 수는 30~40명 정도였다. 설립자인 손정현의 노력으로 공립의 인정을 받았으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개성학교의 보조금과 손정현의 출자금으로 유지해 나가다가 1908년 공립밀양보통학교가 설립되자 모든 것을 인계하고 보조교의 관계는 끊어졌다.

같은 해(1900년) 마산의 일본 영사관 경찰서 내의 한 가옥을 빌어 설립된 마산포 개진학교도 개성학교의 보조교로서 경비 410원의 보조와 교사 파견을 통하여 초등과 50명 정도의 학생을 교육하였다. 이 학교는 1902년에 수공과와 농사 시험장을 설치한 것이 특이하였다. 1907년 마산에 공립 보통학교가 설립되자 학생 일부를 인계하고 1908년에 폐교하였다.

1905년에는 경주 계림학교와 대구 달성학교를 보조교로 하여 각각 96원과 140원을 보조하고 교사를 파견하다가 1908년에 이 두 보조교도 관계를 끊었다. 지교와 보조교의 관계를 끊은 것은 보통학교령의 공포로 각지의 지교와 보조교가 보통학교로 전환하게 되었고, 개성학교가 정부에 헌

남될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³⁴⁾

1899년 이후부터 1903년에 이르는 동안 개성학교의 지교 및 보조교의 상황은 대략 아래표와 같다.³⁵⁾

〈표- 3〉 개성학교 지교 및 보조교 현황

소재교명	재적생	출석생	학과정도	교원
공립부산 개성학교	64	52	초등과전기 1, 2, 3 (일본심상학교 준함) 후기 1, 2, 3 (고등소학교 준함)	일본어 3 한문과 한인 1 수업생 3 (보조교사)
구관지교	64	48	초등전기 1, 2 외 한문 전수생	한국인 1 일본어보조교사 2
부산진지교	95	64	"	한국인 1 일어보조교사 2
공립동래 일어학교	40	27	초등과전기 1, 2, 3	일본인 1
마산포 개진학교	54	42	초등과전기 1, 2, 3 후기 2년 정도	일본인 1 한국인 3
밀양 개창학교	39	34	초등과전기 2, 3 초등과후기 2, 3	한국인 1 보조교사 1

이 가운데 구관지교와 부산진지교는 초등과 전기 3년 과정이고 그 외는 초등과 전기 및 후기 1~2년까지 있었다. 이로써 개성학교는 동래 일어학교를 포함해서 지교 3개, 보조교 4개를 가진 부산·경남 일대의 교육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이 시기는 교육·언론·출판 등을 통한 계몽 운동이 힘차게 퍼져 나갔고 무엇보다도 배우는 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염원이 무르익어 갔던 시대적 요청이 개성학교와 그 지교·보조교가 세워진 동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교·보조교의 설치 문제는 현지 요청에

34)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앞의 책, p. 65.

35) 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 《부산100년사》, 1995, p. 15.

의해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형태의 것도 있으나 개중에는 후일 아라나미의 거취나 정채로 미루어 보아 일제 식민지 교육 전초 작업의 예비적 포석으로 설립 경영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개성학교는 창립과 동시에 교무 전반을 아라나미에게 일임하였다. 아라나미 교장의 지휘하에 개성학교는 교사 약간 명, 간사 1명, 서무 겸 회계 1명을 두었는데, 실제로는 이 외에 조교사(일본인), 촉탁(한국인, 일본인) 및 조교(한국인)가 있었다. 개성학교 직원의 구성을 보면 교사 17명 중 한국인은 3명 뿐이고, 또 조교사 3명 전원과 촉탁 7명 중 5명이 일본인이었다. 이처럼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원 구성은 당시 일본어를 배워 일본의 신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시대적 조류로 보아 불가피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주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일제 침략이라는 타율적인 힘이 강화되어 가는 당시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해 어용적인 성격을 띄기도 쉬웠을 것이다.

다음으로, 1896년부터 1906년에 이르는 동안 입·퇴학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³⁶⁾

36) 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 앞의 책, p. 18.

〈표- 4〉 개성학교 초창기의 학생 상황(1896~1906)

연 도	입 학 자	퇴 학 자
1896	100	·
1897	기록없음	·
1898	40	13
1899	33	51
1900	63	70
1901	17	32
1902	53	45
1903	150	169
1904	157	86
1905	311	200
1906	154	96

개교 당시 100명이었던 입학생수가 1902년까지는 감소 상태였으나 1903년 이후 150명을 넘게 되고, 특히 1905년에는 311명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나 개성학교 초창기의 학생 상황의 특징은 퇴학자의 수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다수의 퇴학자는 학교측에 의한 처분의 결과라기보다는 자퇴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사회는 인재를 구하기가 시급하여 학생들도 대부분 졸업을 기다리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는 자가 많았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초창기인 당시는 학생 자신 및 학부모의 교육 사상 또한 불충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1898년 제1회 초등과 전과 졸업생 7명을 배출한 이래, 1908년도 제6회까지 모두 3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그 명단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³⁷⁾.

37) 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 앞의 책, p. 18.

〈표- 5〉 개성학교 졸업생 현황(1회~6회)

연 도	회 수	인 원	이 름
1898	1회	7	박문칠 임영찬 박중수 박자안 송태승 박창규 양지하
1899	2회	4	송재관 임영규 고양유 박정준
1903	3회	10	장태수 김용근 김재열 김유탉 최영태 김학만 정주룡 이기수 정두수 김원성
1905	4회	3	이형우 송석문 김용준
1907	5회	3	김학룡 김성문 김성택
1908	6회	5	김기행 김윤호 이수봉 김성을 정석모

초등과 전기졸업생 32명 중에서, 1회 졸업생 임영찬, 송태승은 그 후 각각 구관지교, 부산진지교의 주임이 되었다. 임영찬, 송태승의 교사 발탁은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교직원의 조교 20명 중 12명이 3~6회 졸업생이었으므로, 조교는 개성학교 자가 양성 체제가 거의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개성학교 출신은 그 마지막 졸업생인 제6회 졸업생에 이르기까지(1909년부터는 공립부산실업학교로 개편됨) 학교 창립 이후 13년 동안 고작 3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개성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이 학교 졸업생들은 당시 지역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 자신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이들 졸업생들은 후일 인재의 빈곤에 허덕이던 시기에 주로 실업계에서 중견 인물로 활약한 인재가 되었던 것이다.

개성학교는 일본어, 한글, 한문, 영어, 중국어 등 어학과와 보통학 일반을 합친 종합적 교육 내용을 가르쳤다. 러일전쟁 이전의 일어학교의 예와 같이, 개성학교는 ‘일어에 의한 보통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일어학교와 비교하면, 일본의 심상중학, 실업 학교에 상당하는 중

등과 내지 고등과까지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실업 교육에 주력한 점이 특색인데, 개성학교가 특히 중시한 실업은 양잠이었다. 개성학교 창립 초기부터 양잠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실업교육을 장려한 것은 과거의 교육이 공리공론에 흐른 폐단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공이 된 점도 있으나 당시 무엇보다도 선진 문명을 속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는 손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일제가 기도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구한국 말기에 정부가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체제가 갖추어진 학교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사립학교를 관·공립학교로 이관하는 작업을 밀고나갔다. 1907년, 개성학교도 관립 이관의 통첩을 받게 되었는데, 개성학교는 이를 반대하고 사립 보조교로 해 줄 것을 청원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3월에 교명을 사립부산개성일어학교로 고치고 종전대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08년 3월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단절 통첩이 와서 경영 유지가 어려워졌으므로 학교를 학부에 헌납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3월에 학교를 동래 부윤 김창한에게 인계하였다. 이 때 창립자들의 공로를 생각하여 감사장과 4,000원이 전달되었다. 이어, 4월 9일 학부는 교직원과 학생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개성학교 자리에 공립부산실업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부산상업고등학교와 개성중학교, 그리고 봉래초등학교의 전신인 것이다.

이후, 1911년 한국 사회의 시세와 민도에 맞는 簡易 實用 교육을 추진한다는 미명 아래 제1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공립부산실업학교를 부산공립상업학교로 개편하고 수업 연한 3년의 전국 최초의 공립상업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12년 5월 31일 H.E의 칙령에 의해 관립고등학교와 동등으로 인정되었다.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 및 실업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학칙을 변경하여 입학자격을 수업 연한 6년의 보통학교 졸업자로

하였고, 학교 교명을 일방적으로 부산진공립상업학교로 변경해 버렸다. 학제 변경으로 상업전수학교가 없어지자, 일본인 학교인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에서 ‘專修’를 없애 버리고 부산공립상업학교로 개칭하고, 한국인 학교인 부산공립상업학교는 장차 서면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鎭’자를 넣어 부산진상업학교로 교명을 고쳐버린 것이다. 1923년 4월 1일, 학칙 변경으로 수업 연한이 3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교명은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1년 전, 교명 개칭으로 파동을 일으키다가 별다른 성과를 못 본채 결국 일본인 학교가 먼저 개교했다는 이유로 ‘제1’이 되고, 1923년 4월, 결국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로 개칭되고 말았다. 해방후 1946년 부산공립상업중학교로 개칭되었고, 1951년 개성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로 분리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부산 근대 교육의 효시로 설립된 개성학교는 ‘개성학교 약칙’ 제1조에 ‘본교는 한국 국민의 지능을 계발하고 도덕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함을 주로 한다.’고 한 것처럼, 민족의 자주적 개화 문명을 일으키고자 함을 근본 취지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어로써 개명한 학술을 연마하여 양국간의 국교 화친에 이바지하는 것이 교장 아라나미등 일본인 교사들의 본 뜻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이 적극화 되면서 교육 목표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어, 설립자 박기종의 취지와는 달리 개성학교는 일제 식민지 교육의 전초 작업의 예비적 포석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자강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부산의 선각자 박기중에 의하여 개성학교가 창설되어 개교한 이래, 갖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각지에 지교와 보조교를 육성하면서 삼남의 최초이자 유일한 근대적 학교로 발전하여 나갔다. 그 뒤, 한국 정부의 실업교육령에 의해 부산공립실업학교로 변신하면서 한국 최초의 실업학교가

탄생되었는바, 이는 우리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며 동시에 부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겠다. 개성학교는 실로 영남 일대에 있어서의 한국인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방면에 미친 공헌 또한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일신여학교

〈표- 6〉 일신여학교 연혁

1895. 10. 15.	사립부산진일신여학교 설립
1909. 08. 09	구한국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서 수업연한 3개년의 고등과를 병치
1915. 08. 07	학칙을 변경하여 수업 연한 3학년의 소학과와 고등과를 각각 4년으로 함.
1925. 06. 10.	부산진일신여학교 고등과를 동래구 복천동 500번지 신축교사에 이전하고(고등과) 동래일신여학교로 개칭.
1940. 03. 30.	일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동래일신여학교 폐쇄
1940. 04. 20.	민족혼을 기리는 애국유지들이 재단법인 구산학원을 설립하여 학교 경영권을 인수, 동래고등여학교라 개칭하고 동년 5월 30일에 개교식을 거행함.
1946. 09. 01.	학제 변경으로 동래여자중학교로 명칭을 변경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함.
1951. 09. 01.	학제 변경에 따라 동래여자중학교와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분리 편성함.

일신여학교는 부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로써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에도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독교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도 추진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학

교이다.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한 학교가 일신여학교인 것이다.

1890년 호주 멜버른에서 호주 장로교 여자 선교회 연합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연합회는 선교의 목적으로 맥케이((J. H. Mackay) 목사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맥케이 목사는 1891년 일가족을 대동하고 부산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892년 초량 교구를 개설하였고, 1893년 부산진 교구를 개설하였다. 1895년 맥케이 목사의 딸 멘지스(B. Menzies, 閔之使)양이 좌천동의 한 초가에서 소녀들을 모아 주간 학교를 차린 것이 일신여학교의 출발이다.³⁸⁾ 이는 1893년 제1회 선교사 공의회(公議會)에서 교육이 종교의 전초작업임을 인정한 데 있었다.

멘지스양은 일신여학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첫 한국어 교사 심상현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반도 만들어 교육을 하였는데, 1900년 엔젤(G. Engel, 王吉志) 목사 부부의 내한으로 남학생의 교육은 엔젤 목사가 맡았다. 이 학교가 지금의 부산장로회신학교의 전신이다. 그리고 엔젤 목사가 1905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등록된 학생수는 남학생 55명, 여학생 85명이라고 한다.³⁹⁾

초대 교장에는 멘지스양이 취임했으며, 개교 당시에는 수업 연한 3개년의 소학과가 설치되었다. 일신여학교의 초창기 교육 내용을 엿볼 수 있는

38) 그 때의 사정을 기록한 호주 선교회 문서에 의하면 “1892년 선구적 호주 선교회 여자 전도사들이 첫 여학교의 모체를 배태시켰다. 그들이 내한한 이듬해(1892), 멘지스양과 페리(J. Perry)양은 3명의 교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한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만들 목적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시켰는데, 그 뒤 더욱 많은 소녀들이 모여 들었고, 그리하여 1895년 조그마한 교아원에서 주간 학교를 차리게 되었으니, 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 날로 번창함에 학교 이름을 ‘日新(Daily-New)’이라 부르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개교 당시는 3년 과정의 소학과였다.

이렇게 시작한 교육을 신교으로 본다면 이 일신여학교가 가진 신교육의 실제 수업이자 개학은 개성학교보다 6개월이 앞선다는 말이 된다.

39) 동래학원, 《동래학원 100년사》(1895~1995), 세종문화사, 1995, p. 29.

단편적인 기록으로 살펴보면, 초창기의 다른 선교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역자 양성과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⁴⁰⁾

이 호주 선교사들이 교육 중에서도 여성 교육을 중시한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부인들이 먼저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후손을 양성하는 데는 주부들의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부인들을 먼저 기독교로 개종시킴으로써 구습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그러니 학교 초창기는 다른 선교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역자 양성과 복음전파가 중요 내용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아원에서 태동된 계기가 사립일신여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법률적 배경은 1895년 2월에 내려진 고종 황제의 ‘교육입국조서’와 같은 해 8월 12일 발표된 ‘소학교 규칙 대강’(학부령제3호)에서 찾을 수 있다.⁴¹⁾

그 후, 일신여학교는 敎勢와 校勢가 확장되어, 1905년 4월에 좌천동 현 금성고등학교 자리에 벽돌 2층의 교사를 신축 이전하고 본격적인 학교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09년에는 구한국 학부 대신의 인가를 얻어 3개년 과정의 고등과를 병치하였다. 인가 당시의 주소는 ‘경상남도 동래부 부산면 좌1리’이다.

1906년 호주선교부는 좌천동에서의 사립일신여학교가 의욕적인 성장을 이룩하자, 마산과 진주에는 남·여 학교를, 통영과 거창에는 보통 학교를 세우려고 하였다. 더구나 1914년에 경남 지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완전히 철수하자, 그들은 여러 번의 논의 끝에 마산에는 남자 중학교를 부산에

40) 이 학교의 목적은 한국인 목사와 교사 양성에 있었고 점차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서구식 교과목이 추가되었다. ... 이 학교는 교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은 성경·예배가 중심 교과가 되었고 교인 자녀들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교실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非교인 자녀도 2학까지 허용하였다.

41) 동래학원, 앞의 책, p. 29.

는 여자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산의 설립 책임자를 데이비스 (M. S. Davies, 代瑪嘉禮)로 정하고 1916년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1915년 조선총독부가 私學을 그들의 교육 방침대로 장악하기 위하여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고 개정 규칙에 따라 사립 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 개명한 후 새로 인가를 받도록 방침을 강화하였다. 한편, 일제는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성경 수업과 기도회 학습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새 학교 설립 계획은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3·1 독립 운동’의 영향으로 총독부의 통치 정책이 ‘무단통치’ 방식에서 ‘문화통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의 여러 제재 조건이 완화되자, 1923년 선교교육위원회(The Mission Education Committee)의 결의에 의해 새 학교 설립 계획은 다시 구체화되었다. 이리하여 1910년 내한한 데이비스 (M. S. Davies, 代瑪嘉禮)를 부산진일신여학교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1916년에는 여자 중학교로 체제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개편작업이 맡겨졌다. 그녀는 그 후 1914년 12월 8일 일신여학교 4대 교장이 되어 구산학원(龜山學園)으로 그 경영을 옮겨줄 때 까지 가장 장기간 학교 발전의 주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획기적인 개편 작업은 1915년의 개정 사립 학교 규칙의 공포로 말미암아 큰 난관에 부딪혀 결국 1923년에 가서야 실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선교회에서는 이 여자 중학교의 설립이 지역 전도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가장 적합한 장소 선정에 고심하였다. 이전 장소가 동래 복천동으로 선정된 것은 동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과였다. 애초에 이전 장소로 물망에 올랐던 지역은 당시의 부산진 주변인 범내골과 동래 그리고 마산이었다. 그러나 동래 지역 주민들의 여자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열의가 선교회 평의회에 전달되어 동래로 결정된 것이다. 이 때 동래 지역 주민들은 만약 학교 이전의 장소가 동래

로 결정된다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정부인가 학교의 설립을 원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선교 정책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부지 제공은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 이전 장소만 동래로 결정하였다. 선교회 평의회는 선교 정책상 동래 주민의 호의를 수용할 수 없었으나 지역 주민의 학교 유치 열의에 동의하여, 여러 번 논의 끝에 현 동래구 복천동 500번지의 우성 베스토피아 APT 자리에 학교를 안착시켰던 것이다. 동래일신여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는 공립보통학교와 동등하면서 성경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인정하는 정부선정학교(Designated School)로 인가를 받았다.

한편, ‘고등과’를 좌천동에서 복천동으로 옮길 당시, ‘보통과’도 함께 이전할 계획으로 같은 부지 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동래 지구에는 이미 여학생만을 모집하는 공립보통학교(현 낙민초등학교)가 있는데다가 그 학교마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계획은 3년여의 지체 끝에 중지되었다. 그리고 1928년 3월 ‘학교 목적’ 및 ‘학칙’을 변경하여 조문(條文)에서 ‘보통과’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고등과와 보통과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졌다. 좌천동에 남은 보통과는 위더스(M. Withers, 衛大恕) 교장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와의 신사 참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1939년 7월 31일 학교 폐쇄령과 때를 같이하여 끝내 폐교하고 말았다.⁴²⁾

선교계 학교의 설립 정신은 비관론적 시각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전위적 역할의 수행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당시의 우리 사회에 사랑과 자유와 봉사를 기리는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여 이웃을 돕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민족의 역군을 기르고 고식적인 낡은 사회 질서를 개혁하여 민주적인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우리에

42) 동래학원, 앞의책, p. 53.

개 자주·자립하는 정신을 심고자 하였는바 이것이 우리 나라의 근대화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상당한 초석이 되었던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화기 선교 단체들이 근대식 교육 이념, 제도, 방식을 이식, 소개, 실천하여 준 결과 개화기 식민지 체제하의 민족 교육과 여성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컸다. 특히 만리 타국에 건너와서 힘든 환경에서도 여성의 몸으로 이 나라 여성 교육의 기틀을 다져 준 이들 여선교사들의 공적은 부산의 여성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남자 교육에 못지않게 여자 교육을 중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1893년 제1회 선교사 공회의에서 채택된 선교 정책의 일단에서도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⁴³⁾

호주 여자 선교부가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인원과 기금에 의해서 일신여학교를 가꾸어 간 것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부산 지역에 일찍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신념으로 새로운 하나의 학교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⁴⁴⁾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24년 호주 여자 전도부가 좌천동의 사립일신여학교를 동래 복천동으로 옮기고자 하였을 때, 동래 지역민들의 유치의사를 존중하여 정부인가학교로 할 것인가, 선교 정책에 따라 정부 선정 학교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었다. 결국 그들의 선교 정책에 따라 정부 선정 학교로 결정함으로써 학교 이름이 동래여자고등보통학교가 되지 못하고 소위 사립 각종학교인 동래일신여학교로 되었다. 그러다가 1936년 이래로 일제

43) 참고로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노동자 계층을 상대하여 전도하고 후에 상류계층으로 전도할 것.
- ② 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과 기독교 신자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쓸 것, 가정의 주부들은 후손의 양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③ 기독교 교육은 지방 도시에서 소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에서 훈육하여 장래의 교사로 양성할 것.

4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38~39.

의 신사참배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선교회에서는 교육인퇴를 결단하였다. 이에 구산학원이 구성되어 동래일신여학교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민족 여성 교육의 새 전기를 마련하여 정부인가를 받았으므로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교이름은 동래고등여학교로 바뀌어졌다. 또, 광복 이후 미군정하의 문교부 심의회에서 가을 학기제 도입 및 중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하며, 지금까지의 중학교 4학년 졸업생을 고급중학교 2학년에 편입시키는 등 학제 변경 조치(1946. 6. 25)를 단행하였다. 동래고등여학교는 초급중학에 해당하였으니 교명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1946년 9월 1일자로 교명을 동래여자중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1951년 학제 변경에 따라 동래여자중학교와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분리 편성하고 이후 부곡3동 산7-1번지로 이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사립일신여학교로 개교한 그 출발은 초·중등학교를 포함하여 부산 신교육의 시작이라는 데에 뜻이 깊다.

일신여학교는 향토애와 민족의식이 결합된 것이기에 더욱 다른 학교와는 구별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 말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유지들의 열성, 교육을 통한 민족 정신의 양양이라는 정신으로 영남 지역 유일의 여성 교육 기관을 지속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다. 동명학교

〈표- 7〉 동명학교 연혁

1898. 09.	동래부학교 설립(설립자 : 신병록)
1904. 03.	개양학교로 개칭
1906. 03.	삼락학교로 개칭
1907. 11. 05.	동명학교로 개칭
1916. 10. 05.	사립 동래고등보통학교로 개칭
1922. 04. 24.	관립 동래고등보통학교로 개칭
1925. 04. 01.	동래 공립 보통학교로 개칭
1938. 04. 01.	동래 공립 중학교로 개칭
1951. 09. 01.	중고등학교 분리 동래고등학교로 개편

부산의 개항과 함께 신문화의 수용으로 개화의 길을 나가고 있을 무렵, 동래에서도 신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 설립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임이 기영회였다⁴⁵⁾. 신교육을 목적으로 한 동래에서의 학교 개설에 대해서는 동래 기영회가 자주 언급된다. 그래서 동래 기영회의 성격부터 말해두어야 하겠다.

동래 · 부산은 일본과 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고대로부터 왜구의 침탈로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시에는 삼포의 난, 임진왜란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 심한 상처를 받았고, 조선말 개항후는 가장 먼저 일본의 침략 교두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이 곳에서 생을 이어 온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되었으며, 어느 지방보다도 강렬한 민족의식이 면면히 계승되었던 고장이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 속에서 이 고장의 발전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였던 모임이 기영회였다. 강한 민족애

15) 뒤에 내성 초등학교의 전신인 동래공립보통학교, 낙민초등학교의 전신인 동래제2공립 보통학교, 동래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래원예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도 기영회에서 뒷받침하였다.

와 배일 사상을 간직하면서도, 일본을 통한 근대 문명에 접하고는 시급히 근대 문명인 개화사상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의 국가를 건설해야만 독립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하고 이 길은 오직 구국교육에 있음을 확신하고 교육에 주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혼란기에 동래부에 거주하던 고령의 명사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한 기영계가 시초이며 오늘날에까지 선친들이 맺어놓은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150년 이상을 지역 사회 발전과 교육·문화 사업 등에 이바지 해 오면서 모임의 명칭도 기영회로 개칭했다. 당시 입회 자격은 동래부에 거주하는 51세 이상의 지식층 노인으로 하고 서로 상조하며 동래부사까지 입회하는 동래의 대표적인 모임이었다. 1963년 3월 8일 재단법인으로 인가되면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 문화 향상과 애향 호국 정신을 더욱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호국의 육영사업으로 1898년 동래군 한문 소학교(동래부학교⁴⁶⁾)를 운영한데 이어, 동래고등학교의 효시인 삼

46) 1898년 기영회 회원의 한 사람인 신명록은 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뜻을 같이하는 동지 몇 사람과 더불어 동래성 안의 군관청 뒤편에 있는 공립전문소학교의 교실 하나를 얻어 국민학교 과정을 시작한 것이 동래부학교이다. 학제는 초등 전기의 1~2학년 한문 전수반으로 되어 있었다. 교사 진용은 신명록이 교장으로 있었고, 2명의 한국인이 한문을 가르쳤으며, 1명의 일본인이 일본말과 산수를 가르쳤다. 일본인을 초청한 것은 신문화의 수용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동래부학교는 1898년에 출발하여 190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처음에는 5~6명이 입학하였으나, 그 뒤에는 연 평균 40명 가량 되었다. 학생의 연령은 대개 14세 정도였으나, 때로는 20세가 넘는 사람도 있었다. 김병규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이 학교를 다녔으며, 다수의 기영회 회원을 배출시켰다. 이 학교 설립 2년 후인 1900년에 부산 윤필은이 일어파를 병설하여 학교를 확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학교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학교측의 기록에 의하면 동래일어학교는 1900년에 동래에 설립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래 일어학교는 기영회 기록에 의하면 동래부 학교 안의 한 학과로 취급하고, 개성학교측에서는 하나의 학교인 일어학교로 취급하고 있다. 서로가 학교와 학교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때의 일어교사 神谷은 개성학교 동래분교 주인이고 동래부 학교의 교장은 신명록이었다. 이 동래부 학교는 학교장 신명록이 유지들의 기부금과 자신의 사재를 들여 학교 유지에 힘썼으나 건물이 팔려 헐리게 되자 교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교되고 말았다.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대부분 뒤이어 설립된 개양학교로 흡수되었다.

락학교, 동명학교를 세워 일제시대에 많은 선각자를 육성·배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영회는 동래원에 전수학교(현 동래원예고등학교), 동래보통학교(현 내성초등학교), 동래 제2보통학교의 설립과 학교 운영을 지원했으며, 지금도 각급학교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1984년 2월 전 회원은 지금까지 간직해 온 토지를 처분하여 동래구 수안동 659번지에 5층의 문화회관을 신축하여 임대 수입금으로 자체 회관 운영 및 장학 사업 기금을 만들고 있다.

1907년 11월 5일, 동래 기영회에서는 삼락학교를 흡수하여 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 동명이라는 교명은 학교를 통하여 ‘이 땅에 黎明(東明之光)이 찾아올 것’을 표상한 것이다.

동명학교의 설립 취지⁴⁷⁾는 1907년 1월 동래 보통학교에서 개최된 동래부민의 모임인 동래수면노소신사회의의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동래의 마작청 관계자와 기영회원, 삼락학교 관계자, 지방유지, 학생 등이 참석하여 기영회의 공유 재산을 청소년의 교육에 회사하는 의안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의하면, ‘야만과 우매를 벗어나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새로운 학교 교육에 달려 있으니, 이 교육 문제가 우리 국민, 우리 가정의 급무가 아닐 수 없다.’고 하고, ‘우리 고을에 보통학교인 개양학교⁴⁸⁾가 있으나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

47) 동명학교의 설립 취지는, 1907년 당시 설립에 참가한 송상명, 박필채, 정한영 등이 연시하여 부원에게 올린 청원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동래고등학교 80년사》, 1978, pp. 85~87.

48) 동래부학교가 폐교되자, 재학생들은 계속 공부하고자 개성학교의 교장 아라나미헤이치로를 찾아가 의논하였다. 그는 동래부사청과 접촉하여 동래성 안에 있는 서계소 건물을 교사로 마련하여 1904년 9월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의 운영은 온천장의 목욕탕 수입으로 학교 재원을 확보하였다. 아라나미가 교장으로 있는 개성학교는 온천장 목욕탕의 수세로 개양학교 운영비에 충당하고, 일인교사를 파견하였다는 구실로 개양학교를 동래일어학교라 하고 분교로 취급하였다. 온천장의 목욕탕 하나를 1880년대부터 일본

고 또 소학교 졸업후에 진학할 학교가 없으니 장차 학생들을 무엇으로 성취시킬 것인가?’라고 묻고는, ‘선조 대대로 내려온 이 토지를 가지고 자손들의 교육의 터전을 만들어서 하나의 고등학교를 전일의 수성청에 설치하여 고을 안의 자제들을 진학시킨다면 자손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선조가 남긴 덕을 길이 유지하기 위하여 수석회원 박시석, 송상중, 구덕룡, 김상희 외 100명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5條目を 결정한다고 하였다.⁴⁹⁾

이렇게 하여, 동명학교는 박필채가 교장을 맡고 수성청을 교사로 개조하여 개교를 보게 되었다.

동명학교는 1907년에 기영회로부터 논 1,200두락을 회사받은 외에, 대동회의 대표 신명록으로부터 논 36말 3되의 땅을 기부받았으며, 또 牛市

인이 사용하여 관리해 오다가 1898년에 일본 영사가 궁내부와 교섭하여 10년간의 온전 경영권을 얻어, 수입 일부를 동래부학교의 일인 교사 봉급과 개양학교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동래부학교의 학생들을 모두 흡수하여 개양학교를 개교하였다. 개양학교는 1904년 9월에 개교하여, 1회 졸업생만 내고, 1907년 11월에 폐교하였다. 교육 과정은 초등 과정으로 3년제였고, 입학은 수시로 받아 주었으며, 학생수는 20명 안팎이었는데, 일어 과목이 덧붙여져 일본인 2명이 이를 담당하였다. 개양학교는 1회 졸업생만 내고 1907년 11월 폐교하였다.

49) 동래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80년사》, 1978, pp. 52~53. ;

- ① 학교는 전 수성청으로 결정하고, 교실과 교무실을 수리하는 공사는 몇일안으로 시작할 일.
 - ② 전답 1,200 두락을 영구히 학교에 넘겨 교육의 기본으로 삼되, 각 面의 토지세를 바치는 일과 학교의 경비를 지출하는 일은 기영회가 학교 주인이 되어 전담하여 주관하고, 다만 수입 지출의 절차는 따로 조심성 있는 사람을 뽑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할 일.
 - ③ 기영회 안에 학부회를 아울러 설치하여 학교 안의 사무를 수시로 감독할 일.
 - ④ 오늘 이와 같이 결의한 후에 혹시 토지를 분배하거나 토지를 팔자는 주장으로 다시 다른 의견을 제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鄉約을 위반한 罪律로 처벌하고, 각 사회의 모임에서 영구히 제명할 일.
 - ⑤ 개양학교가 지금 곧 폐지되는데 그 학교 생도가 모두 소학교 졸업 정도이니 이 학교에서 함께 교육할 일.
- 이 조목에 미진한 사항은 개교한 후 다시 의논을 더하여 결정할 일.

강과 농수산 과수원을 얻어 제정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개교한 지 1년도 채 안되는 1908년 8월 26일에 칙령 제62호로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동명학교는 1909년 3월 13일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이 해 8월 30일자로 학부대신 이재곤의 이름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어, 1909년 7월에는 이미 공포한 바 있는 고등학교령 시행 규칙이 학부령 제4호로 개정 공포되어, 학과목과 교수의 정도, 교과용 도서, 학년, 수업 일수, 휴업, 수업료, 입퇴학, 징계, 수료, 졸업 등을 규정하였다. 이 때에 이미 일본은 이 땅에 사학을 관학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식민지 교육을 추진하는 법적 조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동명학교의 학제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고등학교는 4학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보습과를 두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명학교는 고등과를 3년제로 하였으며, 2년제의 초등과를 병설하고 있었다.(한 학급의 정원은 50명이었다.) 고등과는 보통학교 정도의 졸업생을 수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3개년의 수학 연한은 시설, 설비, 교원 등에 기인한 것이었고, 설비가 확충되고 지방의 교육 여건이 성숙하면 4년제로 할 예정이었다.(1915년에 4년제로 편성하였다.) 초등과는 보통학교에 입학할 원하나 입학 연령이 초과하여 (13세 이상)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학문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 보통학교 과정을 2년 동안 속성으로 마치게 하여 고등학교 예과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원은 1909년 개교 당시는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교장과 3명의 교사뿐이었으나, 1909년에 학급수가 늘어나자, 교원의 구성은 교장, 교감, 학감이 각 1명, 교사가 5명이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 교사가 1명 있었다. 학생수는 본과 제1학년급이 11명, 예과(초등 과정) 제1학년급이 35명, 제2학년급이 26명, 모두 3학급 72명이었다. 교장과 교감은 수업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교사의 수로서는 여러 과목을 맡지 않을 수 없었으나,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열성과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한편,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를 그들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사립학교 규칙은 사립학교를 고등보통학교에 준하도록 묶어두어서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규칙에 따라 교명을 고등보통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 행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없고, 상급 학교인 전문학교에 졸업생이 진학할 수도 없게 규정해 놓았다. 이에 동명학교는 규칙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916년 10월 5일에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또한,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는 교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시설도 부족하고, 학교 유지 재원도 차츰 빈약해져서 설립자인 기영회에서는 학교의 이전과 학교 경영난의 타개를 위하여 관립으로 이관할 것을 결의하고, 학교 부지 매입비 15,000원과 교사 신축비 11만원을 내어 주고 1922년에 관립으로 이관하였다. 이리하여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는 제5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1922년 4월 24일에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서 새 출발을 하였다.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는 새 학제에 따라 수업 연한이 5년으로 되고, 각 학년 2학급 편제로 개편하여 1922년 4월 2일에 동래구 온천동의 현동래고등학교 교지(13,000평)에 목조 2층의 교실을 신축 이전하고, 1학년 105명을 입학시켰다.

1924년 조선총독부의 재정 정리에 의하여 전국의 관립 고등보통학교,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 관립 중학교가 각 道로 이관되어 공립이 되었으므로 이 학교도 1925년에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가 이처럼 관립에서 공립으로 됨에 따라 학교 편제가 5년제로 되면서 교과 과정과 주당 교수 시수도 개정되었다.

동명학교는 해방 후 1951년에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동래고등학교

로 개편되어 현 위치 온천1동 13-12번지에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개항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명문 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2. 교과 과정의 특징

교과 과정의 변화는 편제표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편제표 속에는 매 교육 과정 시기마다 어떠한 교과목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쳐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편제표 속에는 교육 과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과목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는지, 또는 소홀히 다루어졌는지, 삭제 또는 첨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제표를 보면 교육 과정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학교별 교과 과정 및 시수표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 학교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가. 개성학교

〈표- 8〉 공립부산상업학교 교과과정 및 배주 교수 시수표(1911년 11월)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修身		1	修身의 要旨	1	同左	1	동좌
商 業	商事 要項	4	商業通論	4	各論	6	同左 및 實習
	簿記	5	商業簿記	5	同左 및 銀行簿記	4	同左 및 會社·官 廳簿記
	商品					3	重要商品
	法制 經濟			1	經濟大意	1	商業에 관한 法規
	英語			2	解釋, 會話, 作文, 習字	2	同左
日語		9	解釋, 會話	7	同左	6	同左
國語 및		2	解釋, 讀法	2	同左	1	同左

漢文						
地理	2	國內地理	2	外國地理		
數學	7	算術, 珠算	6	商業算術, 珠算, 代數	6	同左
理科	2	博物	2	物理 및 化學	2	同左
體操	1	普通體操 機械體操	1	同左	1	동좌
計	33		33		33	

개성학교의 교과 과정의 특징은 실업학교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업 과목으로 상사요항, 부기 등이 월등히 많은 시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한 실업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바, 일어 교육이 가장 많은 9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일신여학교

〈표- 9〉 일신여학교 편제 및 교과 교수 시수표(1925)

학년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수 신	1	1	1	1
성 경	3	3	3	3
국어(일어)	6	6	5	5
조 선 어	3	3	3	3
영 어	3	3	3	3
역사·지리	4	4	4	3
수 학	4	4	4	3
이 과	2	2	3	3
도 화	1	1	1	·
가 사	·	·	1	3
재봉·수예	3	3	3	3
음 악	2	2	1	·
체 조	2	2	2	2

교 육				1
법 제 정 제				1
계	34	34	34	34

일신여학교의 교과 과정의 특징은 기독교계 학교임을 반영하여 성경을 3시간, 영어를 3시간씩 이수하였다. 성경이 또한 서구 사상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록 시간적으로는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서구 사상을 학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여학교의 특성상 가사, 재봉, 수예, 음악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 동명학교

〈표- 10〉 동명학교 교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1915년 6월)

학년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시 수	과 정	시 수	과 정	시 수	과 정	시 수	과 정
수 신	1	실천 윤리	1	실천 윤리	1	실천 윤리	1	실천 윤리
국 어 (일본어)	7	읽기 해석 회화 쓰기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조선어 및 한문	4	읽기 해석 암송쓰기작문	4	읽기 해석 암송쓰기작문	3	읽기 해석 암송쓰기작문	3	읽기 해석 암송쓰기작문
역 사		일본 역사	3	일본 역사	3	외국 역사	3	일본 역사
지 리	(3)	일본 지리	(3)	일본 지리	(3)	외국 지리	(3)	地文
수 학	4	산 술	4	산 술	4	대수와 기하		대수와 기하
이 과	3	식물·동물	4	동물 인신 생리와 위생	3	물리와 광물	3	화학 광물
실 업 상 업	5	商事요령과 주산	5	상업 부기와 주산	5	은행 부기와 주산	5	民商法대의·부 기 연습과 주 산
농업	5	양잠과 보통 작 물	5	양잠과 채소	5	과수와 임업	5	토양비료, 주 산, 부기

법제 성제					2 경 제	2 현황 법제
습 자	1	해서·행서	1	해서·행서	1 해서·행서	1 해서·행서
도 화	1	자재화	1	자재화	용기화	1 용기화
장 가	3	단 음		단 음	(3) 단 음	(3) 단 음
체 조	(3)	보통 체조		보통 체조	(3) 보통 체조 기계 체조	(3) 보통 체조 기계 체조
합계	31		34		33	30

동명학교는 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간 배당에 약간의 신축성을 가한 것이 특이하였다. 일본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실업 교육을 약간 증가시켰다. 또한 조선어 및 한문 시간에 주자의 맹자 주석서이자 조선 시대 과거의 교재였던 孟子集註를 사용한 것 등에서도 동명학교가 민족의 자주를 표방하고 끝까지 일제와 과감히 싸워 나온 뿌리가 여기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근대 학교의 교육적 의의

앞에서 부산 지역 근대 학교의 성립과 변화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 들 학교의 교육·사회적 의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먼저 개성학교는 1895년 박기종에 의해 설립된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 한국 최초의 실업학교 성격을 띄고 있는 점은 개항 이후 더욱 활기를 띄게 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한 실업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부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창립 당시 설립자들이 신교육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 신교육을 서구 문명에 한 걸음이라도 앞선 일본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도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일어로써 개명한 학술을 연마하여 양국간의 국교 화친에 이바지하는 것이 교장 아라나미 등 일본인 교사들의 본뜻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이 적극화되면서 교육 목표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어, 설립자 박기종의 취지와는 달리 개성학교는 일제 식민지 교육의 전초 작업의 예비적 포석 기능도 일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신여학교는 부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로 기독교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선교계 학교의 설립은 비판론적 시각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전위적 역할의 수행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당시 우리 사회에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민족의 역군을 기르고 민주적인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주·자립하는 정신을 심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근대화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상당한 초석이 되었던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신여학교는 향토애와 민족 의식이 결합된 것이기에 다른 학교와는 구별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 말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유지들의 열성, 교육을 통한 민족 정신의 양양이라는 정신으로 영남 지역 유일의 여성 교육 기관을 지속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동명학교는 동래라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서 학교의 특징이 부각될 수 있겠다. 동래 지역은 지리적 조건으로 개항 후 가장 먼저 일본의 침략 교두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이곳의 역사는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되었으며, 어느 지방보다도 강력한 민족 의식이 면면히 계승되었던 고장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 속에서 고장의 발전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였던 모임인 기영회의 후원아래 성립된 학교가 동명학교인 것이다. 강한 민족애, 배일 사상을 간직하면서도, 일본을 통한 근대 문명에 접하고는 시급히 근대 문명인 개화 사상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의 국가를 건설해야만 독립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하고는 이 길은 오직 교육 구국에 있음을 확신하고 교육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항장 부산은 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일신여학교를 제외하고 동명학교를 중심으로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민족 학교 교육이었던 사실도 주목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동명학교의 학생들은 항일 학생운동의 기점인 1919년 3·1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후 부산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항일 운동에서도 이들 학생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⁵⁰⁾

이와 같이 개성학교, 일신여학교, 동명학교는 개항 이후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실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 근대화의 물결속에 신교육을 목표로 성립된 개성학교, 일신여학교에 대하여 동명학교는 조선시대 이래 유학적 전통이 뿌리깊게 베어 있는 동래의 학교로 실로

50)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면서 민족 의식을 담은 교재의 편찬과 수업은 일찍이 학생들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심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근대화에 대한 동경과 갈등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래의 향반을 중심으로 한 동명학교의 성립 배경은 일제 말기까지 부산 지역 민족 교육의 대들보가 되었다.

IV. 부산 지역 학생 항일 운동

1. 학생 항일 운동

망국의 쓰라림 속에 나라가 명맥을 잃은 후, 국내외에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적 투쟁은 계속되어 나갔으며 그 중에서 면면히 전통을 이어 국내에서의 항일 투쟁 전개에서 민족 독립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실로 우리 학생들이었다. 한국 학생의 결의가 독립과 자주에 결집될 수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에서 부각된 학생의 항쟁은 국내에 있어서의 근대적 학생 운동이자 민족 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이후에도 일제에 대한 학생 저항 운동은 끈질기게 전개되었다. 3·1 운동에 관계된 부산·경남 지역의 학교는 26개였고, 참가 학생은 1,16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검거된 학생은 270명, 처벌된 학생은 242명으로 부산 지역 독립 운동의 줄기찬 민족사 보전에 이바지했던 곳이다.⁵¹⁾

이 절에서는 개항 이후부터 해방 직전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대표적 민족 학교들의 학생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지역의 3·1 운동, 노다이 사건 등을 통하여 근대 교육이 지역 사회의 교육 및 의식 계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51)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pp. 143~144.

가. 부산 지역 학생 항일 운동

(1) 부산 지역 항일 독립 운동

먼저, 3·1 운동 이전의 부산·동래의 항일 운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일 합방과 때를 같이하여 부산을 중심으로한 인근 지방 역시 일제에 대한 반항 운동이 있었는데, 곧 1910년 8월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민족적인 의분을 느끼고 있을 때 변상태(卞相泰), 최기택(崔基澤), 성학영(成學永) 등 6명이 부산의 불락산(佛樂山)에서 대봉회를 조직하여 조국 광복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고, 그 후 1915년 변상태·윤봉구 등은 부산에서 많은 노동자와 더불어 대신동에서 한국인을 괴롭히던 일본인 집을 습격, 방화 등 항일 운동을 하였다.

둘째, 백산상회의 활동이다. 백산상회는 현 동광동 3가에 위치하였고 안희제(安熙濟) 개인 사업으로 출발한 소위 민족 자본가의 경영 업체였다. 처음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의 무역업을 하던 중 1918년에 합자회사로 고치고 1919년에는 다시 백산 무역 주식회사로 고쳤는데, 해외에 지사를 두어 상해 임정계(上海臨政系)와 손을 잡고 독립 운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눈부신 항일 활약을 감행하였다.

셋째, 1916년 9월 13일 부산진 향민들의 봉기를 들 수 있겠다. 이날 오전 8시 50분 경 부산진 영가대 남구에서 제1호 전차가 좌천동에 거주하는 김춘실을 역살(轢殺)하고 다른 한국인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차 교통 사고가 생겼다. 오랫동안 참아오던 일본인들의 못된 짓과 횡포에 대한 분노가 일시에 폭발되어, 이 곳 주민 박일덕, 박덕균 등 수 백명의 애국 향민들이 한꺼번에 봉기하여 제1호, 제8호 전차를 전복시킨 후 투석으로 이를

파괴해 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부근 향민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 정부 철도까지 차단하여 기차 통행이 중단하게 되었다. 때마침 이날 오전 9시 부산발 특별 열차로 일본 왕족이 서울 공진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었지만, 향민들의 봉기로 기차로 갈 수 없게 되었다. 급히 출동한 일제 수비대 1개 소대가 발포하여 겨우 군중을 해산하여 열차는 열 한 시간 연발된 일도 있었다. 향민들의 쌓이고 쌓인 항일의 분노는 이 때 수 천명이나 봉기한 정도로 반일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놀란 일제가 주동 인물 47명을 소요죄 및 왕래 방해죄로 검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부산 시민의 항일 정신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3·1 운동 직전 부산부의 인구를 보면 한국인이 32,846명이었고, 일본인은 28,012명, 기타 외국인이 187명이었는데 일본인이 부산부 전 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46%). 따라서 개항 초기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의 사회·경제적인 수탈, 지배와 횡포는 전국 어느 곳보다 극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2) 일신여학교의 3·1 운동

3·1 운동 직전인 1916년 9월 13일 부산진의 전차 교통 사고를 계기로 순식간에 수 천명의 부산진 향민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전차의 전복, 기차 운행의 차단을 통하여 항일 운동을 벌일 정도로 쌓이고 쌓여온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 투쟁은 이제 하나의 계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서울 시민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역사적인 시위 운동이 벌어졌고 이

를 계기로 독립 만세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국 각처에 배포되었고, 또 고종의 국장(肉山)에 참례하였던 많은 인사들이 독립선언서를 품에 품고 속속 귀향하여 서울의 일제에 대한 항쟁 시위상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진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부산에서 3·1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1919년 3월 2, 3일경 서울로부터 부산 지역에 독립 선언서가 비밀리에 학생 대표단들에게 전해지면서 부산진일신여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연락이 닿았고 학교별로 나름대로 의거 준비에 서두르게 되었다. 이 때 부산진일신여학교 측에서는 학생 이명시가 연락을 담당하였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 온 주경애, 박시연 선생은 비밀 결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부산상업학교와 연락을 취하는 한편, 부산진일신여학교 동료 교사들을 규합하였다. 또한 졸업 시험을 몇 일 앞둔 고등과 4학년 학생들에게도 궐기를 권유하였고, 3월 10일 기숙사의 고등과 학생들은 밤을 세워 태극기 100개를 만들어 11일의 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1일 오전 고등과 학생 김웅수, 송명진, 김반수 등 11명과 교사 주경애, 박시연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와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서울의 3·1 독립 운동에 대해 듣고 있었던 민중들도 여기에 크게 호응하여 학생들과 합류하였고, 시위 군중 수백 명은 감격에 넘쳐 힘찬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날의 시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으나, 일본 군경이 대거 출동하여 여학생 전원과 여교사 2명을 부산진 주재소로 연행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는 옥중에서도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다. 관련자들은 부산 감옥에 수감되어 1919년 4월 26일 여학생들은 징역 6월을 언도 받았고, 여교사 주경애, 박시연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언도 받았다. 부산진일

신여학교는 20일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고, 4월 1일에야 개학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항일 독립 의지는 졸업식 거부로 이어졌다.

부산진일신여학교의 여학생들은 모두가 16세 전후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었고 또 이들이 일제의 침략 세력이 가장 깊이 뿌리박은 부산에서 용감히 시위 항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3·1 운동사에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일신여학교의 여학생 의거는 당시의 경상남도 3·1운동의 첫 화살을 던지게 되어 그 후 경남 각지에서 만세 의거가 뒤를 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 후 동래고보 봉기, 동래 범어사 학생의거, 구포 시장 의거등이 전개되었다. 부산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독립 투쟁의 대열에 앞장서게 하였다.

(3) 동래고보 봉기

동래에 3·1운동 선언문과 격문을 전달한 곽상훈, 윤병인, 이병호 등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울에서 일어난 3월 1일의 광경을 보고 듣고 있었다. 그 때 곽상훈은 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 2일 저녁에 동래로 내려왔다. 곽상훈은 선언문과 격문을 가져오면서 일본 군경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갓은 애를 썼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이갑성은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모를 부산에 파견하였다. 김모는 3월 3일 직접 동래고보를 방문하고 부산상업학교와 부산진일신여학교는 동래고보에서 책임을 지고 연락하여 대대적인 학생 의거를 전개해 주기를 부탁하고 상경하였다. 졸업반 학생이었던 엄진영, 김귀룡, 고영건, 이상덕, 박득용, 윤삼동, 이병필, 손정출, 배대효, 박임갑, 김철

규 등이 모의하여 각 학급 학생의 연락을 위해 3학년 추규영, 서진령과 2학년 박종관, 이수열, 임명조 등이 비밀리에 모여서 전교생이 궐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동래에 온 박상훈은 모교 동고의 교사이며 민족주의자로서 학생에게 존경을 받아오던 은사인 이환 선생을 찾아가서 띄고 온 사명을 말하고 먼저 동래의 청년들을 뭉쳐서 서울과 똑같이 33인의 인사로서 독립선언문에 서명·날인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환 교사는 이것을 쾌히 승낙하고 실천에 옮겼다. 모의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박상훈 선배가 이환 교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동급 학생들은 그 곳에 가서 청년들의 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거사한다는 것을 알리고 의논하였다. 그 후 학생과 청년들은 각기 나누어 모의하였다. 장소는 학교부근 학소대 근처에 산재해 있던 복천동의 엄진영의 사랑채, 오종식집의 사랑채, 정호중, 백정기 등의 하숙방이었다. 학생들의 집, 하숙방, 학교의 구석진 창고에서 학생들은 손을 나누어 등사원지를 밀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거사날은 3월 13일 동래장날 정오를 기해서 궐기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3월 13일이 되자 학생들은 계획대로 두 분대로 나누어서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1대는 동래군청 앞에 있는 망미루로 모여 들었고, 제2대는 동래 남문으로 모여 들었다. 이 때 제1대의 지휘는 엄진영이 맡았고 제2대의 지휘는 김귀룡이 맡았다. 학생들이 이 곳을 택한 것은 그 곳은 장날에 장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대원들이 거의 다 모여 들자 미리 눈치를 채고 있던 일본 헌병경찰들이 삼시간에 뛰어와서 엄진영과 김귀룡은 미처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틈이 없었고 형세가 급했으므로 우선 태극기를 대원들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고서는 대한독립만세부터 먼저 외쳤다. 동시에 대원들도 태극기를 꺼내 들고 일제히 만세를 외치고, 장에 나온 범어사 승려들과 수천명의 장꾼들이 만세를 외쳤다. 삼시간에 장터를 중심으로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 때 한국인 경찰

관 한 사람은 제복을 벗어 버리고 속옷바람으로 만세를 불렀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헌병보조원 한 사람도 모자와 제복을 벗어 버리고 군중과 합세하여 열싸안고 외치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격한 민중의 동요에 일제는 기마경찰관과 헌병만으로는 힘이 모자라 소방대원까지 동원을 시켜 처음에는 공포를 쏘았지만 나중에는 실탄을 쏘아댔다. 군중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경찰관과 헌병은 검거를 시작하였다. 이 의거로 체포되어 복역한 학생은 형량 1년6개월이 엄진영, 김귀룡, 1년이 김인호, 김성조, 박득룡, 추규영, 고영건, 이상덕, 서진영, 정호중, 이인우이고 8개월은 김원룡, 엄병영, 박임갑, 이수열, 윤삼동, 손영수, 김철규, 김기삼, 백정기, 신중은, 김진영, 임명조, 신주성이었다. 이들은 감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취조받는 과정에서 심한 고통도 받았기 때문에 발병하는 자도 많아 병보석으로 나온이도 있었다. 그 중에 김성조는 병이 심하여 치료의 효과도 없이 사망하였다. 그 소식에 접한 교사, 학생은 비분에 잠겼다. 초상 때 학생들은 조기와 만장을 들고 전교생이 만덕 고개를 넘어서 장지로 갔는데 구포가 생긴 이래 조객이 가장 많이 모인 장례식이 되었다. 일본경찰은 김성조가 수감되어 병보석 중에 죽었으니, 옥사나 다름없었으므로, 모여 든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것을 두려워 하여 조객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조객은 불어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엄숙히 장례는 치루어졌다. 비록 동고생의 의거는 많은 희생을 치루었으나, 그 열은 헛되지 않고 동고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이렇듯 민족의 의거에 동고생은 민족의 선봉이 되기 위해 분연히 참가하였던 것이다.

(4) 계속되는 부산의 독립 운동

부산·동래·구포로 독립 운동이 번져감에 따라 3월이 지나 4월 3일에는 학생·시민들이 주동이 된 대대적인 독립 만세 시위가 다시 부산진거리에서 일어났다.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 배수원(裴守元)등은 동교 교사 홍재문(洪在文)과 더불어 모의를 거듭한 이후 이 곳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백명 부산 시민의 호응을 얻어 궤기하였다.

4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 이들 주동 인물들은 ‘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현수막을 좌천동 거리에 세우고 수백명의 군중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연이어 소리높이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달려온 왜군경들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면서 주동 인물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주동 인물 10명이 검거되었다. 또 이 때 이들은 이러한 독립시위와 아울러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애국 신문을 발행할 계획을 서둘렀다.

4월 8일에는 부산진일신여학교 여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보다 더 큰 항일만세시위가 부산진 거리에서 전개되었다. 즉, 부산진일신여학교는 4월 1일에 개학하였으나 옥중 은사들과 학생들의 옥고를 전해 듣고 그 분노, 의분을 금할 수 없었다. 4월 8일 오후 8시경 부산진공립보통학교 김애련(金愛連)·전봉호(全鳳浩)·이갑이(李甲伊)등이 주동이 되어 일신여학교 여학생 약 50명과 인근 수 만명의 군중들이 호응하여 좌천동 신도로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때 달려온 경찰이 그 행진을 제지하고 주동 인물을 검거하자 이갑이는 육박전으로 이들에게 대항하여 검거된 주동인물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다가 폭악한 경찰들을 당해낼 수 없어, 그도 또한 검거되고 말았다. 이 날 의거에는 5명의 주동 인물이 검거되었다. 이 곳 의거는 4월 9일·10일에도 계획되었다. 즉, 부산진 좌천동에 살고 있었던 김태곤(金台

坤)·박성해(朴聖海)·최익수(崔益守)등은 동래고등보통학교·부산상업학교·일신여학교의 남녀 학생과 부산시민들을 규합하여, 4월 9일·10일 양일간에 걸쳐 좌천동에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하려고 모의하다가 왜경에 탐지되어 피검되고 말았다.

그 후 영도에서는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한 이남식(李南植)이 영도의 사립 옥성학교 교사 정인찬(鄭寅贊)의 지도를 받아 옥성학교 학생 신기홍(辛基洪)·장용술(張龍術)·허택윤(許澤潤)등과 더불어 옥성학교 뒤편 솔밭 사이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시내로 행진하려다가 왜경에 검거되고 말았다. 이 의거를 지도한 정인찬은 그 후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 임시정부 경남 간부 및 간사장의 직책으로 안희재·윤현태(尹顯泰)등과 손을 잡고 부산을 무대로 김해·밀양·양산 일대에 걸쳐 독립자금 모집에 종사하다가 왜경에 검거되어 1929년 2월 18일 출판법위법의 죄명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아 고된 옥고를 치루었다. 그는 옥고의 여독으로 1932년 7월에 별세하였다.

부산 지방의 3·1 항쟁은 비록 그 운동의 형태는 약간 다르나 4월 하순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즉, 4월 27일 오후 4시경에는 부산진역 남쪽 약 백미터 지점인 영가대 부근 철도가에서 한국인 청년 약 30명이 부산을 향하여 달려오던 열차에 투석 세례를 가하여 유리창을 파괴하였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 서면 당감동 제1철교 건널목 부근에서도 부근을 향해 건너오는 특별 열차에 큰 돌을 투석하여 2등 차장의 이중 유리가 박살난 사건이 있었다.

이 외 근로자들의 항쟁으로 4월 20일 부산의 전차 운전수 50여명이 항일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고, 5월 16일에는 만철 관리국 철도공장 초량분공장의 한국인 직공 200여 명이 역시 항일 독립 파업을 단행하여 그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6) 부산 학생 항일 운동(노다이 사건)

부산 학생 항일 운동(소위 노다이 사건)은 1940년대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던 시기 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919년 3·1 운동과 동경 유학생의 2·8 독립 운동, 동래고보, 부산진일신여학교, 동래 범어사 학생의거 등의 항일 정신을 이어받아 부산에서 소위 ‘노다이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노다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40년 11월 21일 당시 일본군인 배속 장교 노다이의 총지휘 아래 경남학도연합 군사대연습이 있었다. 경남의 중등학교를 경기관총과 38식 소총으로 무장시켜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 동군은 2상(한국인의 현 부산상업고등학교), 부중(부산중학교, 일본인 중학교), 1상(부산상업학교, 일본인학교)으로 편성하여 구포역에서 하차하여 김해방면으로 진격케 하고, 서군은 동래중(한국인 학교), 마산중학(일본인 학교), 진농(진주농업학교, 한국인 학교), 진중(한국인 학교) 등으로 편성하여 진영역에서 하차하여 김해 방면으로 진격케 하여 김해 평야 특히 한림정에서 조우전을 벌이는 모의 전투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훈련 중 노다이는 항상 한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일부러 고된 산지를 우회시키는 등 한국 학생을 과로토록 하는 한편 기타 보급품에 있어서도 편파적인 민족 차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훈련을 끝내고 훈련 종합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인 학생을 격찬하여 나라 잃은 한국인 학생들은 노다이의 처사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2일간의 모의 야영전투훈련을 마친 다음날인 11월 23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경남학도전력 증강 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전 연도에는 한국인 학교인 동래중학이 단연 우승하여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경기장에 입장할 때는 전 연도 우승교가 우

승기를 앞세워 맨 먼저 입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 동 대회 입장시 전 연도 우승교인 동래중학을 앞세우지 않고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을 앞세워 그들 일본인의 속셈이 노골화되었다. 동래중학은 이 부당한 처사를 심판장 노다이 대좌에게 항의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노다이 대좌의 차별에 더욱 격분하여 한국인 학생들은 금년에도 일본인 학생들에게 지지않겠다는 불을 뿜는 민족 자존, 민족 긍지의 투지로서 단가 경쟁 종목에서 동래중학이 1위를 차지하자 그들 일본인 심판은 트집을 잡아 재시합을 시켰는데, 재시합시 동래중학의 선수가 경주도중 넘어져 결국 3위가 되었다.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동래중학 측에서 항의하였으나 노다이 심판장은 그 항의를 일축하고 말았다.

오후 6시경 일제에 대하여 분노로 일어선 양교 학생 1,000명은 운동장 입구에 다시 집결하여 가두에서 시위항쟁을 전개할 것과 영주동에 있던 노다이 관사를 습격하여 항의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당일 양교의 4, 5학년의 학생은 집총 무장을 하고 있었다. 양교 학생은 악대를 선두로 하여 5, 4, 3, 2학년의 순으로 시내 중심가를 향하여 쇠잔해지고 있던 민족혼을 경각시키는 충격적인 시위항쟁을 벌였다.

1940년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발단하여 부산 시내 중심가를 누비고 영주동의 노다이 대좌의 관사 습격으로 일단락되었던 항일학생의 봉기는 당장 그날밤 10시경 이미 부산 헌병대에서 각 경찰서에 긴급 지령을 내려 양교 학생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이날밤 귀가 도중 많은 학생이 검거되어 남서(南署)·북서(北署)·영도서 등 각서의 유치장, 심지어 각서의 취조실, 경남도청의 무덕전(武德展)과 각 경찰서의 무도관(武道館)까지 초만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 24일부터 양교는 학업은 고사하고 일경의 취조장이 되었고 매일 수십명의 양교 고학년생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학생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유치장에서

노래와 만세를 불러 간수로부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냉수를 덮어 쓴 일도 있었다. 이 때 일경·헌병에 검거된 학생수는 약 200명에 달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15명의 학생은 송청·투옥되었다. 한편 양교 당국도 일본 관헌의 압력에 의해 자체적인 학생 처벌을 감행하였던 바 퇴학 21명, 정학 44명, 견책 10명 등의 희생자를 내었다.

부산의 학생 항쟁은 내일을 등지고 저무는 듯하던 민족혼을 속전의 성격을 띠고 경각시키는 투쟁이었다. 중일전쟁의 사실이 숨겨진 채, 승전의 구가만을 강요하던 일제의 철저한 보도통제 속에서도 일제 그들의 침략 출구이던 부산과 주변 지방의 각계 각층으로 부산 학생 항일 운동의 소문은 퍼져 나갔다.

학생 항쟁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가혹하였다. 당일의 일경과 헌병은 부산, 동래중의 학생 약 200여명을 체포하여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하였고 혹독한 취조 끝에 주모자로 지목된 학생 15명을 송국하였고 수 많은 학생이 퇴학등의 희생을 치루었다.

부산 학생 운동은 폭악한 일제에 항거하여 한민족의 독립 정신을 발휘한 학생 의거이며, 일제 말기 국내에서 전개된 대규모적인 항일 투쟁 중에서도 최후의 것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독립 정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었다. 당시 일제의 엄중한 보도 관제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광주 학생 사건보다 더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2.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

앞에서 일제 시대 부산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부산 지역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3·1 운동(1919년) 및 노다이 사건(1940년)등을 들 수 있다.

부산 지역의 대표적 근대 학교인 개성학교, 일신여학교, 동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 항일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동명학교의 경우 3·1운동 이후 일제 말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항일 운동의 명맥을 잇고 있어 특히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이는 이들 부산 지역 민족 학교 및 근대 학교의 성립 배경, 각 지역 사회 풍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개화기 이후 근대 사회의 시대적·지역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부산에서 끝났다고 일컬어질 만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부산에 그들 침략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개항 이후 부산 지역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일본인 거주는 구 초량왜관자리에 마련된 거류지만으로 절대 부족하였으며 또 경부선철도, 관부연락선 개통으로 인한 각종 연계 사업의 추진은 평지가 부족한 부산 연안에 대규모 매축 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부산은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는 시발지 성격도 띄고 있었으므로 시가지 형성 및 발전 양상 등에 있어 일본적 색채를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부산 각 지역에는 일본인 전용 거주지가 형성되는 등, 따라서 종전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민, 즉 한국인들과의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부산 지역은 항일 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부산지역에서의 한국인학교 성립과 전개과정 등 제반 측면에 있어 일본인학교 및 조선총독부 교육 방침과의 갈등 관계를 적지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신여학교, 동래고보, 범어사 학생들의 의거 등 뒤를 이어 일어난 그 후의 2, 3, 4차 항일 의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제의 한국 및 대륙에 대한 침략의 전초기지이며 병참기지인 부산 지방에서 애국 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에 의해 전개된 3·1 독립 항쟁이 얼마나 끈기있게 지속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한민족 특히 부산 시민들의 저력을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다.

부산인의 항거 의의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 개항 이래 한일 합방을 거쳐 조국 광복이 될 때까지 전국에서도 가장 불리하고 불행한 여건 아래 살아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 만큼 일제의 침략 근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인은 일단 항일 운동을 시작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감된 의식·정신에 투철하여 그들의 의분을 폭발적으로 발휘하기도 하였고, 지속적으로 항일할 줄도 알았고 또 인내할 줄도 알았던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 식민 지배 기간을 거치는 동안 부산 지역에서 성립·변화되어 온 근대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근대 교육이 어떻게 기원하고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근대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부산은 개항 이후 일제의 對조선,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모든 근대적 시설과 문화 현상이 여기에 부응된 것이라면은 부산의 신교육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제의 침략적 요소가 어느 곳보다 많이 잔존해 있을 것이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산 지역은 개항 이후 밀어닥친 신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신교육을 통한 민족 교육을 회구하는 기운이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한편 부산에서 일본인들의 교육은 이미 부산항 개항 다음해인 1877년에 소학교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도 근대적 시설을 갖추어 교육을 실시해 나갔던 바, 조선인의 신교육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것에서도 식민지 노예 교육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 학교들을 살펴본 결과, 부산의 신교육 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개성학교는 여러 지교, 보조교가 모두 일어학교의 성격을 띄고 일어를 배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개성학교가 성립된 후 지방 유지들에 의해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얼마가지 못하고 재정난으로 공립학교로 흡수, 정리되어 갔다. 이것은 또한 민족 자본의 빈약화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공립학교로의 정리는 일제가 지도한 획일적인 식민 노예 교육의 정리, 실현 과정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교계에서 세운 학교는 그들의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비교적 성공해 나갔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세운 사립 학교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이들 근대 민족 학교들은 민족 교육과 독립 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도 뚜렷하게 수행하였다. 1919년 3월 학생들은 태극기를 제작하여 거리를 누비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우리 나라 독립 운동사와 정치사, 문화사 등의 기록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시켰던 바, 그 역할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중심으로 볼 때 부산 지역의 근대 학교의 성립은 개화 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조선인의 민족 말살 정책과 동시에 조선 총독부의 수탈 정책에 의하여 부산 지역의 교육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식민지적 유산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실증적인 자료와 고증을 거쳐 올바르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단행본

- 김용옥, 부산의 歷史와 精神, 전망, 2001.
- 교육신문사, 《한국교육 100년사》, 1999.
- 유방란,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운영》, 서울대학교 교육사학회, 1998.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1998.
- 김영유, 《한국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1997.
- 한규원,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부산상업학교동창회, 《부산 100년사 (1895-1995)》, 1995.
- 학교법인 동래학원, 《동래학원 100년사 (1895-1995)》, 1995.
-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편찬위원회, 《釜山學生抗日義舉의再照明》, 1992.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권, 1990.
- 강순원,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사회적 조건: 김신일 외 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1989.
- 김동철, (新發掘地域史料)東萊史料, 驅江出版社, 1989.
- 경남여고60년사편찬위원회, 《경남여고 60년사》, 1987.
- 동래기영회, 《동래기영회 140년사》, 1984.
- 이원호, 《개화기 교육정책사》, 서울, 문음사, 1983.
- 부산상공회의소, 《釜山商議史》, 1982.
- 한국교육사연구회편, 《한국교육사》, 교육출판사, 1981.
-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래고등학교 80년사》, 1978.
- 정세현,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일지사, 1978.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1971.
-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 개항-일제치하》, 태화문화사, 1963.
- 이만규, 《조선교육사 上, 下》, 을유문화사, 1949.

국내학위논문

- 전민호, 〈개항 초기의 근대교육 수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함봉기, 〈한국의 근대교육사상과 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창만, 〈한국 開化期의 교육사상에 관한 一研究〉,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광덕, 〈1905년~1910년 시기 사립학교교육의 성격〉,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호철, 〈개화기 근대학교 설립과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일순, 〈韓國 開化期 教育의 性格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노일, 〈기독교계 학교교육이 한국근대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유방란,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임덕순, 〈구한말 근대학교의 민족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금란, 〈韓末 私立學校와 民族教育 : 非宗教系 私學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정원, 〈개화기의 근대학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창원, 〈개화기의 근대학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심유섭, 〈한국 개화기의 근대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경숙, 〈개화기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1990.
- 길형환, 〈韓國近代 教育制度 成立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희원,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학교의 설립과 그 성격에 관한

-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임공빈, 〈韓國近代教育의 成立과 教育理念에 關한 研究〉,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서인국, 〈開化期 近代 教育制度의 導入과 實施에 關한 研究〉,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광민, 〈開化期の 教育近代化 論議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허재욱, 〈韓國私立學校法에 關한 研究 : 自主性和 公共性을 中心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상갑, 〈구한말 근대학교 설립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손인수, 〈한국근대학교의 건학정신과 교육구국 운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김학출, 〈한국의 최초 근대학교생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여용운, 〈구한말근대학교제도수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김병하, 〈한국 개화기의 신교육사상에 관한 일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장규식, 〈한국근대학교의 성립과정과 건학정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정길봉, 〈韓國 近代學校 成立過程과 民族教育에 關한 一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국내연구논문

- 이시용,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0.
- 정재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 《한국교육신문사》, 1999.
- 손인수, 〈신교육의 발단과 근대학교의 성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998.
- , 〈韓國 近代學校의 設立과 教育理念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敎授論叢》, 1998.
- 조준연, 〈韓國近代敎育의 展開와 發達過程〉, 《공주전문대학, 논문집》 23, 1996.
- 김홍수, 〈江原道地方의 近代學校 開校時期에 관한 研究;春川,原州,江陵國民學校의 敎師任命을 중심으로〉, 《春川敎育大學, 論文集》 35, 1995.
- 최명인, 〈韓國近代學校의 教育理念과 敎育活動〉, 《誠信女子大學校敎育問題研究所, 敎育研究》 29, 1995.
- 이시용, 〈開化期の 仁川敎育〉, 《仁川敎育大學校, 論文集》 28, 1994.
- 한용진, 〈기독교계 학교에 의한 근대 한국 고등교육 고찰〉, 《高麗大學校敎育問題研究所, 敎育問題研究》 6, 1994.
- 김성준, 〈慶南密陽 近代敎育의 搖籃 正進學校 研究: 李炳憲의 思想과 그 一門의 創學理念에 關聯하여〉, 《國史編纂委員會, 國史館論叢》 제 23집, 1991.
- 최정만, 〈韓國의 近代學校의 成立과 發達〉, 《화성사, 考試行政》 28, 1991.
- 정영희, 〈개화기 근대학교설립에 관한 연구〉, 《용암 차문섭교수 화갑기념 사학논총》, 1989.
- 이승철, 〈開化期の全北의代學校〉, 《北郷上文化研究會, 全羅文化研究》 2, 1988.
- 이해명, 〈개화기의 교육방법 개혁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논총》 54, 1987.
- 정영희, 〈開化期の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仁川大學校, 論文集》 10, 1986.
- 강장희, 〈개화기 신교육에 관한 일고-실시경위를 중심으로〉, 《목포해양

전문대학 논문집》 19, 1985.

김상기, 〈한말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신교육구국운동〉,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4.

금호곤, 〈韓國近代學校의 成立過程과 그 貢獻에 관한 研究Ⅱ；1905年～1910年〉, 《전주교육대학교, 論文集》 19, 1983.

이기룡, 〈韓國近代教育機關의 發展過程〉, 《牧園大學 論文集》 6, 1983.

김기곤, 〈韓國近代學校의 成立過程과 그 貢獻에 관한 研究-1882年-1905年〉, 《전주교육대학교 論文集》 15, 1979.